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이정운

지난 2016년 학군 의료 봉사활동을 다녀온 자로써 이번 봉사활동은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으며 더욱더 학군 의료 봉사활동의 차별성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군 의료 봉사활동은 준비부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대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진료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는 소동물에 보다 방점을 두고 봉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더욱더 개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되었고 또한 이를 위해 더 많은 준비 역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학부생들은 거의 3주 전부터 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지식과 원칙에 대해 공부를 하였으며, 동시에 진행되었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서도 정확한 보정법과 투약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덕적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덕적도에 방문한 6월 27일에는 오후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덕적도에서는 크게 세 팀으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김재영 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팀이 수술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두 팀은 서강문 교수님과, 이인형 교수님의 주도하에 이동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이인형 교수님과 함께 1일차 이동진료를 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론과 실습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조금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섬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형견을 주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견의 보정에 대한 어설피름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인형 교수님 지도하에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팀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점점 진료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1일차 이동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모든 팀원들이 능숙하게 접종을 할 수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을 배분하여 빠른 속도로 진료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덕적도 주민들께서 주셨던 인정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었지만 주민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료나 과일을 주셨기에 더욱 힘이 났고 열심히 진료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민분들의 감사의 말씀과 덕담까지 받아가니 마음속에 보람을 가득 품고 진료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과정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일차에는 서강문 교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오전에는 이동진료를, 오후에는 수술실에서 보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날의 경험을 토대로 2일차에는 더욱더 빠른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백신을 직전에 미리 제조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투여하기도 하고, 교수님의 적극적인 보정도 한 몫 하였습니다. 또한 1일차와 다르게 차량을 통해 더욱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동이 불편하신 주민께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수술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조로써의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각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인지하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원장님의 빠른 손놀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지혈이나 도구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를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3일차에도 일부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미리 TNR 대상이 될 고양이들을 포획해준 해군 장병분들의 도움과, 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다양한 조언을 주신 김재영 원장님, 그리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전력으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이 없었다면 올해의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이번 봉사활동은 일부 아쉬움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멋지고 알찬 기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봉사활동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유지되고 조금씩 발전해 나아간다면 적어도 수의대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봉사활동의 많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이재권

섬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처음에 다소 긴장한 부분이 있었으나, 숙식부분에 대해 배려 및 준비해주신 부분이 많았던 덕분에 큰 이상이나 불편함 느끼지 않고 잘 활동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참여 전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병원실습을 전부 마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인 준비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의 주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덕적도 봉사활동 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과목은 마취통증의학, 대동물 (실제 중성화 수술 해 볼 기회가 주어짐), 내과1 - 2 (문진) 였습니다. 또한, 이동진료 및 백신팀의 업무에 유용하게 쓰인 경험은 이전에 참여한 임상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고찰해보자면, 바쁜 업무 중 개인역할분담이 변하게 될 때 이에 대해 듣고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1일차때는 이동진료팀이라 서강문교수님이 직접 역할분배 및 지휘를 총괄해주셔서 이런 저의 약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특히 2일차 활동 중간중간에 목격했던 모습이 다소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의사표현, 팀에 대한 소통태도나 방법 등을 좀 더 다듬어 줄 경험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추후 비슷한 활동에 참여시까지 경험을 쌓고 준비해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의 경우 '단혀진 공간에서, 주도하는 사람 확정 후 안전하게 실시' 와 같은 원칙을 항상 상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에 따라 업무시 집중력이 널뛰는 부분이 아직 정도가 강한 편이었다는 점도 생각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1일차, 3일차 오전에 개인적으로 집중력이 좀 약해져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체력단련 등 개인생활 관리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찍힌 사진이나 스스로 관찰중인 상황 등을 보면 본과 생활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몸관리가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좀 더 밝은 주제에 대해 말씀 남겨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정받은 팀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처음 구성할 때 학년별 안배에 신경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3팀 모두 균형잡힌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크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2팀의 경우 팀원 간 수직적으로 내리누르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없이 원만한 분위기가 잘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라도 서로 실습에 관련한 많은 임상적

팁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추후 참여하는 후배학번들이나 기존 학번 학생들에게도 좋은 독려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민행동 및 대군행동부분에서 예의 있는 모습이 항상 유지된 부분 역시 성공적인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와 대처 태도 역시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상황일수도 있지만, 3일차로 이어지게 된 활동상황에서 대부분의 동료와 학생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 유지하면서 (굳이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잘 활동 마치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양되어있는 책임감이 없이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